

중국,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거주 한인 관련 자료관리를 위한 연구

A Study of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related to Korean Residents in China, Central Asia and Russia

장우권* · 윤귀성**
Woo Kwon Chang · Gwi Sung Yun

차 례

- | | |
|-----------------------|--------------|
| 1. 서 론 | 4. 정보자원관리시스템 |
| 2. 중국 한글 정보자원 | 5. 결 론 |
| 3.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한글 정보자원 |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중국,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에서 거주하는 한인 관련 한글 정보자원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한글 정보자원 현황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주 내용은 1)중국,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한글 정보자원분포와 매체의 현황 2)한글 정보자원관리기관 현황 3)중국과 러시아의 문헌분류표 4) 정보자원시스템 구축 기본계획과 시스템 구현으로 이루어졌다.

키 워 드

정보자원, 한글 정보자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기관, 문헌분류표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Full-time Lecturer, Dep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k1961@hanmail.net)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ksmam92@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6년 9월 1일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system of investigating and analysing the status quo of the HANGEUL publications, and management of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in China, Kazakhstan and Uzbekistan of the Central Asia, and Russia. Documents analysis, direct observation and interview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result of this paper consists of as follows: 1)distributing the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produced and collected by the Korean in China, Central Asia and Russia 2)presenting status of the organs of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3)documenting classification of China and Russia 4) constructing system of the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KEYWORDS

Information Resources, HANGEUL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System, Organs of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Documentation Classification

1. 서 론

21세기는 정보자원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다. 정보자원이란 정보사회를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물질적, 정신적 생활양식의 복합체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문화 속에서 나타난 정보자원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민족 정보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정리·보존함으로써 한민족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은 약 650만 명으로 추산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적 자원은 21세기 국력의 핵심이며 이것을 하나로 네트워크화했을 때 나타

나는 결과는 가장 강력한 지식정보자원이 될 것이다.

수집대상은 해외에 산재되어 생산되었거나 생산되고 있는 문헌정보자원이다. 이 정보자원은 연구대상 국가의 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즉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그 결과로 생산된 정보자원들이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족과 고려인들의 정보자원의 생산주체와 객체인 생산물의 서지사항들이다.

이 연구에서 찾고자 한 연구내용으로서 생산의 주체는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출판사, 도서관, 당안관(기록관) 또는 문서관 등이다. 이들 주체들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조

선족과 고려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① 신문과 연관된 간행물 ② 방송 프로그램, 뉴스레터, 관련된 방송물 ③ 학술 잡지와 일반 잡지 ④ 단행본, 연속간행물, 목록집, 색인지 등을 발행하였다. 도서관은 위의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발행한 것들을 수집하여 이를 자료조직화하고 있다. 당안관은 국가 각 기관들이 생산해 낸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이를 자료조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한인 관련 정보자원 생산의 주체이자 객체인 기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정보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들을 발굴해냄으로써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케 하고, 어떤 사건에 연루된 단체나 개인들의 명예를 되찾게 하는 등의 지식정보자원의 생산과 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재외 한인정보자원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한인 관련 문헌정보자원의 실태조사는 필자들이 3년 동안(2003. 9. 1 2006. 8. 31) 해외 현지조사와 국내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이며 중국은 크게 조선족 집거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는 연해주, 사할린, 모스크바, 상테스부르크 등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외의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은 다

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발행되고 발표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이것을 단행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등으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둘째,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지역에서 조선족과 고려인의 정보자원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셋째,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내 조선족 집거지 모든 지역을 망라하여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자료조직화한 다음 목록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모스크바, 연해주, 사할린 지역의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분석한 다음 정리하였다. 넷째, 수집된 정보자원을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의 형태별로 분류하였다. 다섯째, 형태별로 분류된 정보자원을 분석하여 기술항목을 선정하고 색인방법을 결정하였다. 여섯째, 선정된 기술항목과 색인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2. 중국 한글 정보자원분포 현황

2.1 한글 정보자원분포와 매체별 현황

중국 내 한글 정보자원분포 현황은 크게 정보자원 매체별과 정보자원관리기관 별로 나누어진다. 정보자원 매체는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에서 생산해낸 간행물과 프로그램 등이다. 정보자원관리기관은 도서관과 당안관 등이다. 도서관은 조선족 집거지역과 잡거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글 정보자원 매체별 현황은

〈표 1〉 한글 도서의 시대별 출판상황

출판사 시대	연변인민 출판사	연변교육 출판사	민족 출판사	외문 출판사	중국소년 아동출판	사오녕인 민	출판사	흑룡강조선 민족출판사	요녕민족 출판사	계
1947~1965	1,646	68	343	4	1					2,062
1966~1978	985	6	269	87		1	17	2		1,367
1979~1990	1,081	180	511	28			339	190	30	2,359
합 계	3,712	254	1,123	119	1	1	356	192	30	5,788

다음과 같다.

1) 출판사와 출판물: 2006년 4월 현재 한글 발행 출판사는 8개가 운영되고 있다. 북경의 민족출판사, 중앙민족대학출판사, 외문출판사, 요녕의 민족출판사, 연변자치주의 연변인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흑룡강성의 목단강 조선민족출판사 등이다. 한글 도서의 시대별 출판상황은 〈표 1〉과 같다(류연산 1999; 립선옥, 송창수 1999).

2) 신문사와 신문: 한글 신문을 조사한 결과 신문은 크게 시대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 이후 해방 전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조선독립신문 등 민족지가 91종, 만성보 등 공산주의 신문이 46종, 만주일보 등 친일지가 5종이 발행되었다. 둘째, 해방 이후 전환기이다. 이 시기에는 한민일보, 연변민보, 길동일보, 인민일보, 길림일보, 로백성보, 시사순보, 학습과 전투, 외교청년보, 민주일보, 홍광화보, 단결시보, 단결일보, 동북조선인민보, 인민신보, 신민일보, 전투보, 동북어린이신문 등이 발행되었다. 셋째, 현재 일간신문은 연변일보,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요녕일보(한글보)가 발행되

고 있다. 이외에 격일간으로 발행되는 중국 조선족소년보가 있다. 주간지로는 라지호텔레비존 신문, 동북조선족과학기술신문, 종합신문, 현대가정, 스포츠, 조선족중학생보, 생활안내 등이 있다. 무료신문으로는 일요특간(주간), 금일요녕(요녕일보사), 연변대학보(특수) 등이 있다. 생활지(무료신문)로는 동북저널, 중앙리빙, 생활안내(주간) 등이 있다.

3) 잡지사와 잡지: 한글로 출판하는 각종 잡지사가 40여 개가 있으며, 그중 연변자치주지역에 연변문학월간지, 양지사 등 37개가 집중되어 있다. 한글잡지는 1990년대 들어와 많이 발전했으며, 발행 종수만 해도 20여 종이나 된다. 잡지의 종류는 크게 문예지, 학술지, 교육지, 학생지, 일반지, 정치교양지, 전문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변대학교 도서관 리옥금 교수와 김덕모 교수가 2002년 7월에 출판한 '중국한글잡지목록색인 1954~1990' 을 토대로 조선족잡지를 조사하였다. 리옥금 교수와 공동으로 이 목록색인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잡지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목록색인에 수록된 잡지명과 수록

되지 않은 잡지를 종합하여 하나하나 내용분석을 토대로 중국식 분류표에 맞추어 처음으로 ‘中國朝鮮文類別雜誌名目録索引’을 완성하였다. 이 색인은 3만264여 개의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다. 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콘텐츠는 1,433종(류별로, 강별로 중복된 잡지 포함)의 잡지에 수록되었다.

4) 방송사와 방송: 조선말 방송은 현재 연변 인민방송국, 연길텔레비죤방송국, 흑룡강조선어방송,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중국국제방송국 조선어방송 등 5개 방송사에서 실시하고 있다.

2.2 한글 정보자원관리기관 현황

1) 조선족도서관: 조선족도서관은 크게 조선족 거주지역별로 조선족 집거지역 도서관과 조선족 잡거지역 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조선족 집거지역 도서관: 중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길림성의 연변조선족자치주이다. 현재 이 자치주에는 현(縣) 이상 도시에는 모두 9개의 공공도서관(연변조선족자치주도서관, 연변소년아동도서관, 도문시도서관, 돈화시도서관, 용정시도서관, 훈춘시도서관, 화룡시도서관, 왕청현도서관, 안동현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일부 향(鄉)에도 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다. 대학도서관은 연변대학도서관 외 6개 분관이 있다. 전문학교도서관은 4개가 있다. 학교도서관은 흑룡강성에 144개

학교, 요녕성에 90개 학교, 길림성에 87개 학교, 연변자치주에 219개 학교, 기타지역에 7개 학교 등 2003년 현재 537개 학교도서관이 있다. 연구소도서관은 10개 있다. 기타 도서관으로서 기업체도서관 4개, 독서사 2개가 있다.

② 조선족 잡거지역 도서관: 조선족 잡거지역 도서관은 타민족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말한다. 여기에는 북경에 있는 중국국가도서관, 중국민족도서관이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대학교도서관으로는 중앙민족대학교도서관, 북경대학교도서관, 한국어학과가 설립된 40여 개의 대학교도서관이 있다. 또한 한국학연구소가 개설된 30여 개의 대학교도서관과 한국학연구소 부설 도서관이 있다.

2) 당안관: 당안의 정의는 당안법(案法) 제 2조에 기술되어 있다. ‘당안이란 과거와 현재의 국가기구, 사회조직 및 개인이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문화, 종교 등의 활동에 종사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자, 도표, 음성, 영상 등 여러 형식의 가치가 있는 역사적 기록물을 말한다.’ 당안관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의 독립운동사료 중 문서, 보고서, 서신, 이력서, 사진 등의 기록물이 주로 각급 당안관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문헌과 신문, 잡지류는 주로 각급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독립운동사료가 소장된 당안관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있다. 당안사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글이나 중국어로 된 사료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

2003년 현재 중국의 당안관은 총 3,816개 소인데 그중 국가종합 당안관이 3,046개소, 국가전문 당안관 225개소, 부문 당안관 142개소, 기업 당안관 304개소, 문화사업단위 당안관 40개소, 부업(副業)단위 당안관 59개소

이다.

2.3 중국 문헌분류표

중국의 문헌분류는 전통적으로 '경·사·자·집(經·史·子·集)'의 4부 분류체제를 사용하여 왔다. 1919년 5·4 운동을 전후하여 도

〈표 2〉 중국 도서관 도서분류법의 주류구분

대구분	중도법(中圖法)	
마르크스-레닌주의	A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정신과학	B	철학
사회과학	C	사회과학 총론
	D	정치, 법률
	E	군사
	F	경제
	G	문화, 과학, 교육, 체육
	H	언어, 문자
	I	문학
	J	예술
	K	역사, 지리
	자연과학	N
O		수리과학, 화학
P		천문학, 지구과학
Q		생물과학
R		의학, 약학, 위생학
S		농업과학
T		공업기술
U		교통, 운수
V		항공, 우주비행
X		환경과학
종합적 내용의 문헌	Z	종합성 도서

서관 건립과 과학문헌의 출판으로 전통적 분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DDC에 기초하여 새로운 분류법을 편제하였다. 1975년 중도법(中圖法)이 나오기까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반영하여 30여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식을 5개로 대구분하고, 그 아래 22개의 기본 주류로 세분하였다. 5개 대구분 아래 해당되는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하여 214개 강목을 두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7개, 정신과학에 13개, 사회과학에 89개, 자연과학에 98개, 종합적 내용의 문헌에 7개를 두었다.

3.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한글 정보자원 현황

3.1 한글 정보자원분포와 매체별 현황

1) 출판사와 출판물: 스탈린 이전에는 연해주 지방만도 약 10여 개의 출판사가 있었다. 이러한 왕성한 출판문화활동의 결과 단행본, 잡지, 신문 등 수많은 한민족 정보자원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스탈린 체제의 1930년대 후반에 펼쳐진 연해주 조선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는 모든 정보자원 생산을 멈추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보자원의 파괴와 약탈, 방화 등으로 거의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후 현재까지 연해주나 사할린에서 조선어로 된 정보자원을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출판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서는 강제이주 이후 자수시출판사와 카자흐국영 문예서적출판사, 알마아타출판사, 알마아타작가출판사, 알마아타오네트출판사 등에서 20여 종의 한글 문학작품을 발행하였다. 이외에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수많은 도서들이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산삼을 비롯한 다수의 출판사에서 고려인에 관련된 문헌들이 발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어로 된 문헌을 발행한 출판사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2) 신문사와 신문: 최초의 한글 신문은 1908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한 '해조신문'이며, 이후 대동공보, 대양보, 권업신문, 자유종, 청구신보, 일세보, 한인신보, 국민성, 대중의 목소리, 새세계, 새벽북, 적기, 동아공산, 자유보, 노동신보, 자위회보, 붉은귀, 선봉, 연해주어부, 광부, 당교육, 동방꿈무나, 공격대원, 스탈린네츠, 레닌광선 등이 발행되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 계열 신문은 자유종, 일세보, 대중의 목소리, 새세계, 새벽북, 적기, 동아공산, 노동신보, 붉은귀, 선봉, 연해주어부, 광부, 당교육, 동방꿈무나, 공격대원, 스탈린네츠, 레닌광선 등 26종의 신문으로 강제이주 이전까지 발행되었다. 이외에 신문자료와 1937년 이후의 신문자료는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연해주에서 '원동' 신문(1994), 후대신문(1999), 고려신문(2004)이, 월간지로 하바로프스크 연합회신문, 블라디보스토크의 '연해주소식' 이 발행되고 있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서는 ‘선봉’이 ‘레닌의 기치(1938)’, ‘레닌기치(1961)’, ‘고려일보(1991)’로 제호가 변경되어 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교민을 위한 일일정보지로 ‘한인일보(1999)’, ‘실크로드(2004)’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신문(1997)’, ‘교민일보(2001)’가 발행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는 ‘재러한인(在露韓人) 고려일보(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가 발행되고 있다.

3) 잡지와 잡지 : 잡지는 연해주에서 1908년 ‘신중’, 1910년 ‘대한인경고보’, 1917년(?) ‘애국혼’, 1924년 ‘말과 칼’, 1933년 ‘앞으로’ 등이 발행되었다. 현재는 한국어로 발행되는 잡지는 없다. 이후 ‘한인회소식(사할린, 1992)’, ‘한인사회(하바로프스크, 1997)’ 등이 발행되고 있다.

4) 방송사와 방송 :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한국어방송, 하바로프스크의 ‘하바로프스크한국어방송’, 사할린 우리말방송, 카자흐스탄의 ‘우리민족 텔레비전방송’과 ‘고려인라디오방송’, 우즈베키스탄의 ‘친선’ 등이 있다.

3.2 한글 정보자원관리기관 현황

1) 도서관: 강제이주 이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인극장, 한인사범학교, 직업기술교육학교가 있고 포시에트에는 한인직업기술교육학교가 있었다. 국경지역에는 380개의 한인보통학교와 한인 폴호즈와 공장노동자를

위한 대학예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을 갖추고 있었다.

2001년 현재 연해주와 사할린에는 한국어교육원(블라디보스토크,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하바로프스크), 대학교 한국어과(극동대학교, 우수리스크사범대학, 극동기술대학교, 극동경제대학교, 아르쭘극동대학, 아르쭘기술대학, 나호드카경제대학교 등), 한글학교(2001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중심으로 23개 학교에서 35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 등에 도서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필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푸슈킨도서관(국립도서관)과 국립과학도서관에는 한국의 고문서 및 한국 관련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다(푸슈킨도서관에 약 2만5,000권, 과학도서관에 약 1만권). 즉 1937년 강제이주 이전과 이후에 수집하여 소장된 고문서, 1937년 강제이주 이후 크즐오르다와 까잘린스크의 한인학교와 한인사범대학의 폐쇄령과 모든 한인 관련 서적금지령, 그리고 1939년 소자령에 의해 유실도중 건져낸 일부도서와 문서, 북한에서 발행된 고문서와 도서이다. 이외에 카자흐국립대학교의 한국학과 자료실, 알마아타 한국교육원도서관 등이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과학도서관 등에서는 많은 한국학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주로 북한에서 온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니자미 사범대학, 동방대학, 세계언어대학의 한국어학과와 한국학자료실, 타슈켄트 한국교육원도서관 등이 있다.

러시아에서는 국립레닌도서관, 모스크바대학교 한국학센터도서관과 고리끼도서관, 페체르부르크대학교도서관, 모스크바 1086학교도서관, 극동연구소와 동방학연구소 도서관, 고려일보와 삼일문화원도서관 등이 있다.

2) 문서관: 현재 러시아연방에는 2,200개 이상의 국가문서보관소와 기록관리센터가 있으며, 이중에는 14개의 연방문서보관소, 32개의 연방공화국 문서보관소, 12개의 변경지역 문서보관소, 134개의 도문서보관소, 2,060개의 시 지고 문서보관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보관소를 관리하는 행정기관만도 78개 기관에 달한다.

3.3 문헌정보자원 분류와 분류법

러시아 도서관 문헌분류표는 일반적으로 학술도서관용 B B K와 대중도서관용 B B K로 나누어진다. 학술도서관용 B B K는 러시아 알파벳 대문자 28자모를 주류 21개 분야에 사용한 비십진 방식의 열거형 분류표로서 1960년대부터 1968년까지 800명이 넘는 학자들이 편찬에 참여한 대규모 학술도서관용으로 출판된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표라고 할 수 있다.

학술도서관용 B B K가 출판된 이후 도서관 내용과 장서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분류표가 계속해서 출판되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학술도서관 B B K 간략판, 과학도서관용 B B K, 공공도서관을 위한 대중도서관 B B K가 있으며, 1978년 4권으로 편성된 아동

도서관용 B B K 등을 들 수 있다.

대중도서관용 B B K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분류체계도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1980년대 후반에 편찬되었으나 그 이후 3판의 편찬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대중도서관에서 현대적인 분류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확실한 출처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 국립도서관 B B K연구소에서 1997년에 편찬한 대중도서관용 B B K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도서관이라는 전문서지학 잡지 및 다른 전문 정기잡지에 이미 발표된 서지분류방법에 따른 변화 및 보충 사항을 고려했으며, 대중도서관용 B B K 제3판의 출판을 준비하면서 고안한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침서는 새로운 주제, 문제점, 현상, 역사 및 정치적 상황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출판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학술도서관용 B B K와 대중도서관용 B B K의 주류 구분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학술도서관용은 러시아 알파벳에 따라 주제를 구분하여 21개의 주류를 구성하고 있으며 주류 아래에 156개 강목을 두고 있다. 대중도서관용은 먼저 한 대중도서관용은 먼저 한 자리 숫자 7개(1, 2, 3, 4, 5, 6/8, 9)의 대주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숫자를 사용하여 22개로 구분하였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가진 학술도서관용 B B K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표 3〉 학술도서관용 ББК와 대중도서관용 ББК의 주류 구분

대구분	학술도서관용 ББК		대중도서관용 ББК	
마르크스-레닌주의	A	마르크스-레닌주의	1	일반학문/학계 간 지식
자연과학	B	자연과학 전반	2	자연과학
	B	물리수학	20	자연과학 전반
	Г	화학	22	물리수학
	Д	지구에 관한 과학	24	화학
	E	생물과학	26	지구학
	Ж/О	기술 · 기술과학	28	생물학
	И	농림업 · 농업 · 임업	3	기술 · 기술과학
	P	보건 · 의학	4	농림업 · 농임업학
			5	보건 · 의학
사회과학	C	사회과학전반	6/8	인문사회과학
	T	역사 · 역사과학	60	사회과학전반
	У	경제학 · 경제과학	63	역사 · 역사과학
	Ф	정당 · 사회정치기구	65	경제학 · 경제과학
	X	국가와 법 · 법률과학	66	정당 · 사회정치기구
	И	군사과학 · 군사	67	국가와 법 · 법률과학
	У	문화 · 과학 · 교육	68	군사과학 · 군사
	III	언어과학 · 무학	70/79	문화 · 과학 · 교육
	III	예술 · 예술학	80/84	언어과학 · 무학
		85	예술 · 예술학	
정신과학	З	종교 · 무신론	86	종교 · 무신론
	Ю	철학 · 심리학	87	철학
			88	심리학
종합적 내용의 문헌	Я	종합적 내용의 문헌	9	종합적 내용의 문헌

라기보다는 LCC, EC, DDC, UDC 등과 같은 기존 분류표에서 각각의 특징을 조금씩 취하여 편찬되었으며 1969년 이래 정기적으로 보충개정판이 출판되고 있다.

4. 정보자원관리시스템

4.1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4.1.1 시스템 구축의 기본설계

1) 구축대상 선정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수집된 정보 자원 중 문헌정보의 서지사항을 1차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으로 한다. 목록집과 색인집에 등재된 자료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그 다음으로 구축한다.

녹취자료,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등은 향후 구축을 위해 분석·정리한다.

2) 기술항목 선정

구축대상으로 선정된 정보자원을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으로 형태별로 분류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 형태별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함이다. 형태별로 분류한 문헌정보의 서지사항을 분석하였다. 기술항목도 형태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항목선정은 목록규칙 수준(간략정보)에서 결정하였다. 기술항목 선정 시 이 시스템이 목록, 초록, 원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기에 소장

〈표 4〉 정보자원 형태별 기술사항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기술사항	서명	간기	서명
	부서명	제목	저자
	vol.	잡지명	발행자
	총서명	통권	발행지
	vol.(총서)	발행자	발행년
	저자	발행지	페이지
	발행자	발행년	크기
	발행지	페이지	키워드
	발행년	크기	주기사항
	페이지	언어	분류번호
	크기	ISSN	목차사항
	ISBN	키워드	초록사항
	키워드	주기사항	원문정보
	주기사항	분류사항	소장처
	분류번호	목차사항	
	목차사항	초록사항	
	초록사항	원문정보	
원문정보	소장처		
소장처			

치의 중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외하였으나 한국학 및 한국사 연구자들의 관련 문헌조사를 위해 추가하였다. 기술항목은 정보자원의 형태에 따라 <표 4>와 같이 선정하였다.

4.1.2 일반 원칙

1) 개발원칙

이 연구를 통해 조사되고 수집된 정보자원 서지사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개발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중국과 러시아의 한인정보자원을 단행본, 정기간행물, 논문으로 형태별로 분류한다. 이는 기술항목 선정에서 언급되었듯이 입력 포맷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형태별 특징과 용어 간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실재 원문을 취득한 자료가 미비하기는 하나 향후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원문자료 수집과 원문서비스를 위해 시스템에 원문사항을 포함시킨다. ③ 목차와 초록 서비스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다국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⑤ 국내 생산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정보자원의 분류표도 같이 표기한다. ⑥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한다. 검색뿐만 아니라 입력시스템도 원거리에 접속하여 웹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입력자) 관리를 위한 별도의 포맷을 구축한다.

2) 색인 방법

색인처리는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파일을 대상으로 분석·색인하여 색인어를

저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내에 축적된 정보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점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키워드 색인 모듈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입력 시에 명사형 언어가 모두 색인어로 처리되도록 한다.

또한 키워드 필드에 수작업으로 기록한 용어도 색인어로 처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불용어 사전 모듈을 이용하여 조사, 관사 등을 처리한다.

3) 목차·초록·원문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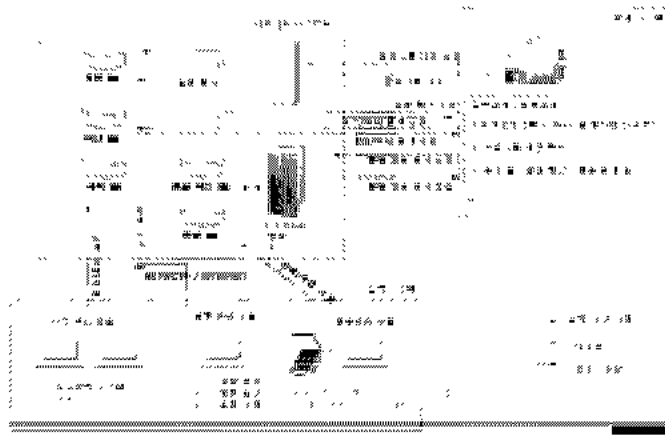
현재 이 시스템은 서지사항만을 구축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더 발전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목차와 초록, 그리고 원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와 초록의 경우 텍스트나 HTML로 직접 입력하고 원문정보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아크로벳 리더(Acrobat Reader)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도록 한다. 원문정보의 파일명은 입력되는 서지사항의 등록번호와 일치시킨다.

4.2 시스템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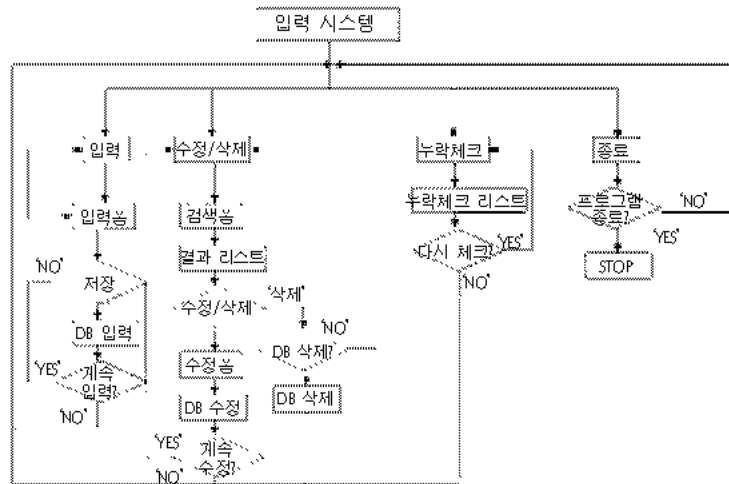
1) 시스템 구성

이 시스템은 최소 윈도우 98 이상 환경에서 웹 언어인 PHP(Personal Home Page tools) 3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웹기반에서 입력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DB는 서지DB, 원문DB, 색인DB, 회원DB로 구성하였다. 원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원관리 부분을 포함시켰다. 검색뿐만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입력시스템 구성도

아니라 입력도 웹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그림 1〉).

2) 데이터베이스 구조

① 서지정보 입력 : 이 시스템의 입력시스템은 〈그림 2〉에 나타나있듯이 데이터베이스 입

력 사이트(<http://altair.chonnam.ac.kr/~ehansang/admin>)에 접속하여 입력 폼에서 서지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검색하여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형태별로 구분된 서지정보는 자동으로 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입력되고 저장된다.

입력포맷을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다. 입력된 정보 중 서명, 총서명, 잡지명, 저자,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키워드, ISBN, ISSN, 목차, 초록, 원문 정보는 검색대상이 되도록 구축하였다. 입력대상 의 형태별로 필수입력항목을 선정하여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지 않을 시에는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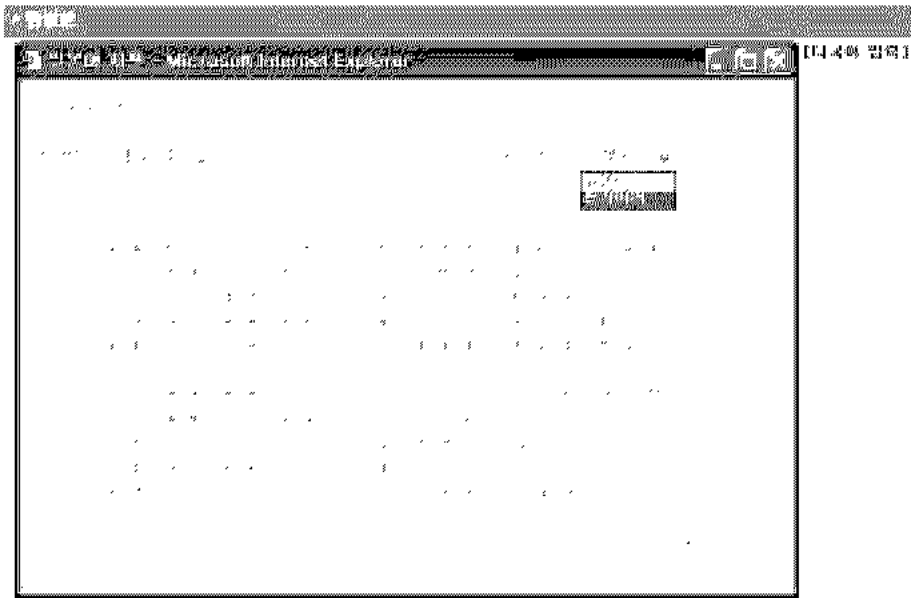
단행본등록의 필수입력항목은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년이다. 정기간행물의 필수입력항목은 제목, 잡지명, 발행처, 발행지이다. 정기

간행물의 경우 입수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행지 사항을 필수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학위논문의 필수입력항목은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년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은 입력폼 중 단행본 입력화면이다.

서지정보를 수정할 시에는 <그림 3>에 나타나는 입력화면 상단의 검색/수정 메뉴를 선택하여 검색시스템의 방법과 동일하게 서지정보를 검색하여 결과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최초 입력포맷이 나타난다. 최초 입력포맷에서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한다. 삭제



<그림 3> 단행본 입력화면



〈그림 4〉 다국어 입력창

의 경우 결과 리스트 왼쪽에 선택란을 두어서 상세정보를 보지 않고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삭제 버튼은 결과 리스트 오른쪽 하단에 배치하였다. 원문정보의 원문파일은 PDF파일로 축적되며 아크로벳 리더(Acrobat Reader)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된다. 각 원문파일의 파일명은 등록번호와 일치시킨다. 목차와 초록 정보는 텍스트와 HTML을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다. 다국어 입력을 위해 일본어와 러시아어 입력창이 나타나도록 구축하였다.

〈그림 4〉에 다국어 입력창이 나타나 있다.

현재 단행본 8,899건, 정기간행물 3,842건, 학위논문 667건이 축적되었다.

② 관리자 및 회원관리

입력정보의 질을 고려하여 입력자에 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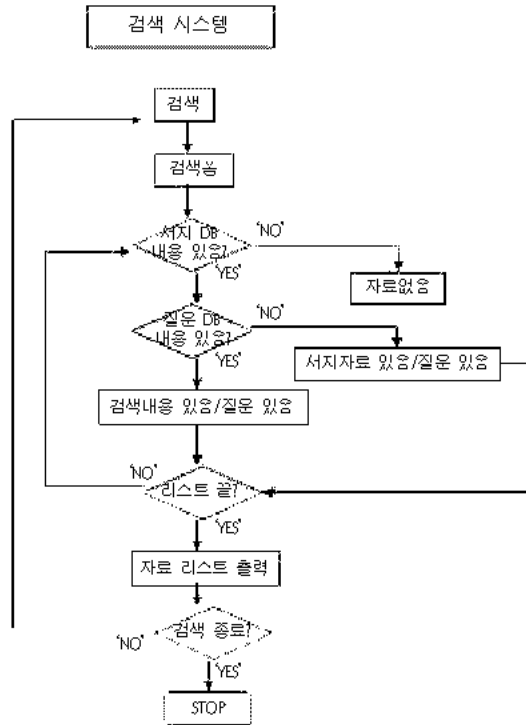
아이디를 부여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자 인증을 받은 후 입력화면에서 서지사항을 입력한다. 회원관리는 향후 원문정보의 유료서비스와 향상된 정보봉사를 대비하여 회원관리 부분을 추가하였다. 원문정보서비스를 위해 전자결제시스템과 인증시스템의 추가 구성이 필요하다.

3) 정보검색시스템

① 검색시스템 특징

정보검색시스템은 검색엔진을 통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따라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행하는 기능을 한다.

검색된 결과는 다음의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이 시스템의 검



〈그림 5〉 검색시스템 구성도

색과정은 이용자가 정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폼을 입력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한다. (<http://altair.chonnam.ac.kr/~ehansang>)

〈그림 5〉는 검색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6〉은 검색 사이트 초기화면이다. 왼쪽 메뉴바에는 인물정보, 기관정보가 있다. 동영상정보서비스를 위해서 VOD시스템이 추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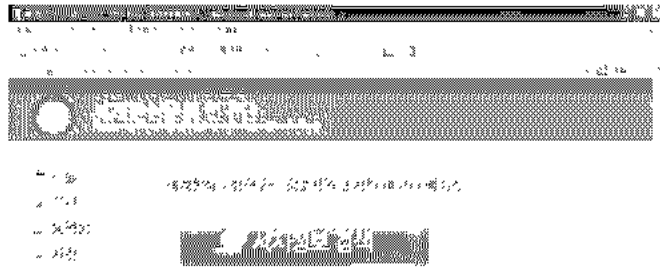
② 검색방법 및 결과

검색조건은 자연어검색, 키워드검색, 전방일치 검색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연어 검색은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검색창에 입력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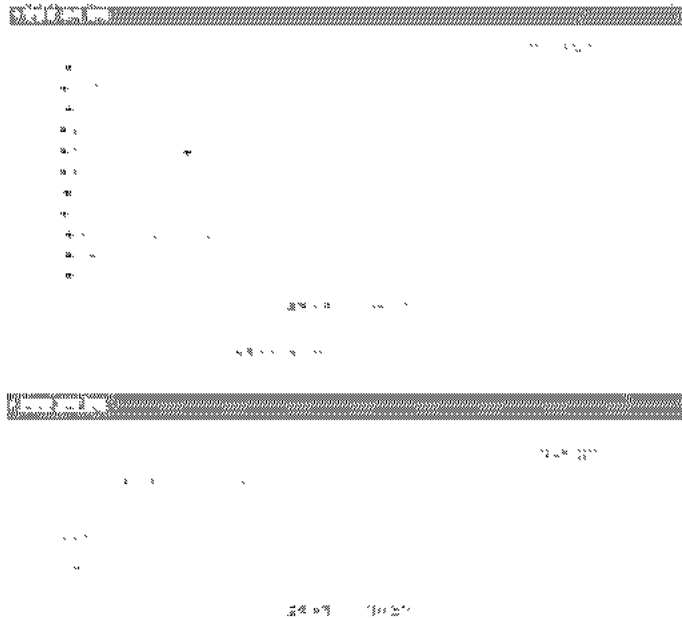
때 입력 시에 색인 모듈을 통해 구축된 명사형 용어가 검색된다.

키워드검색은 색인으로 등록된 명사형 용어 뿐만 아니라 입력자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직접 입력한 키워드도 포함되어 검색된다. 전방일치 검색은 ‘안중근’이라 검색하면 ‘안중근’으로 시작되는 모든 서지사항이 검색된다. 검색방법은 간단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7〉은 간단검색과 상세검색 화면이다.

간단검색에서는 서명, 저자명, 발행지, 발행처,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고 발행년은 단일년도(1979)와 복수년도(1985~1999)로 모두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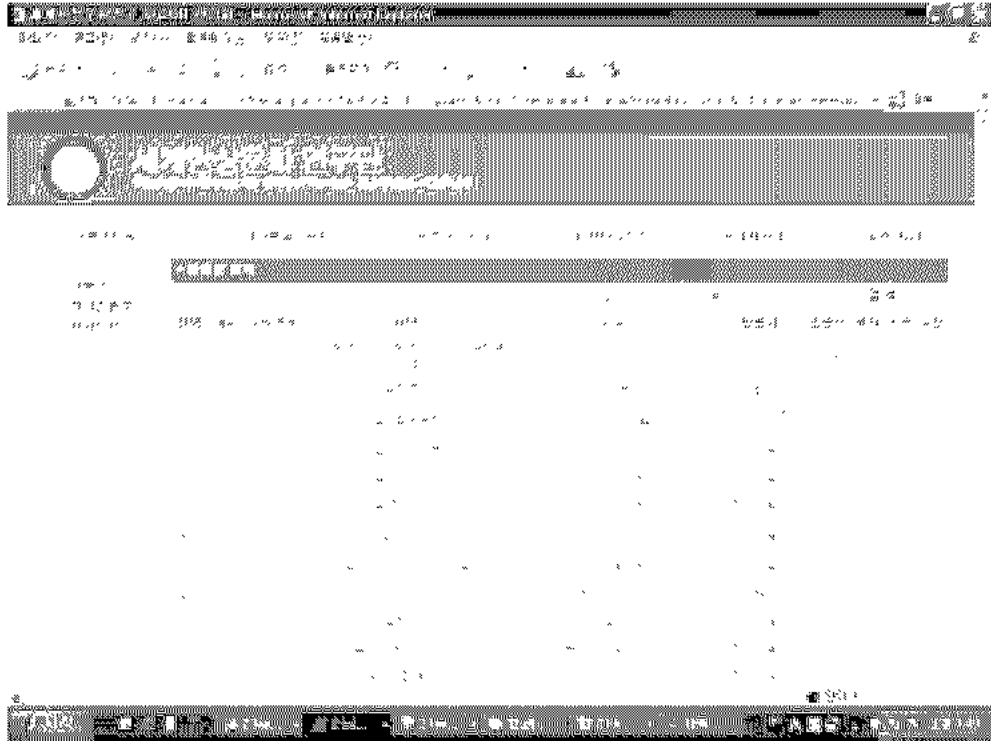
〈그림 6〉 검색시스템 초기화면



〈그림 7〉 간단검색과 상세검색화면

색이 가능하다. 상세검색에서는 간단검색의 항목에 총서명, ISBN(ISSN), 목차, 초록, 원문검색을 추가시켰다.

검색결과 리스트가 출력된 후 이용자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선택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검색결과는 리스



〈그림 8〉 검색결과 리스트 화면

트 형식으로 등록번호, 서명, 저자, 발행자, 발행년, 목차, 초록, 원문항목이 나타난다. 15건씩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며 최대 검색건수는 지정하지 않았다. 〈그림 8〉은 검색결과 리스트를 나타내고 있다.

4) 이용자 인터페이스: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이 이용자로부터 정보검색을 위한 탐색어가 입력되면 이를 시스템 언어로 변환한 후 정보검색시스템에 전달하며, 정보검색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검색결과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검색결과는 〈그림 8〉과 같이 서명(제목) 리스트와 소장지역을 알아보기 위한 발행지와 발행년, 그리고 목차, 초록,

원문 정보의 유무를 보여준다.

5. 결 론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산재된 한글 정보자원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에는 재외한인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관련 중요한 정보자원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정보자원의 주제별 분류를 위해 중국 도서관분류표와 러시아의 B B K를 조사하였

다. 중국의 도서관분류표는 DDC를 기초로 하였으나 B BK는 열거식 분류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하나의 주류로 설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난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정보자원을 한글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현지어로 확대하여 전체적인 해외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조직화한다. ② 조사지역이나 정보자원의 형태를 주체로 하는 것보다 주제별 정보자원을 주체로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함으로써 정보자원 생산매체별과 정보자원 관리기관별로 상호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어 정보자원 생산과 유통, 서비스대상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③ 정보자원으로서 발행된 학술잡지의 콘텐츠를 조사해야 한다. 즉 발행된 학술잡지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조사하여 분석해야 한다. ④ 정보관리정책을 조사해야 한다. 정보관리정책은 정보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관리하는지를 알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자료조직적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당안관과 러시아의 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정보자원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내용조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자원의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웹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수집된 정보자원의 서지정보만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인물, 기관, 동

영상, 사진정보는 향후 서비스를 위해 준비 중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와 구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자원 입력을 위해 기술사항을 결정하고 검색대상이 될 사항을 선정하였다. ② 정보자원의 언어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러시아어와 일본어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③ 정보자원을 형태별로 분류하여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으로 나누고 입력 및 검색 폼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였다. ④ 색인을 위해 키워드 색인 모듈과 불용어 사전 모듈을 이용하였다. ⑤ 향후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위해 목차, 초록, 원문정보 필드를 포함시켰다. ⑥ 서지정보 입력 시 형태별로 필수입력항목을 선정하였다. ⑦ 수정 및 삭제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력포맷의 상단에 검색/수정 메뉴를 두었다. ⑧ 향후 원문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관리 포맷을 포함시켰다. ⑨ 검색방법은 자연어검색, 키워드 검색이 모두 가능하며 검색조건으로 전방일치검색을 택하였다. ⑩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 간단검색과 상세검색을 구분하였다. ⑪ 결과 리스트에 이용자가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화면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를 통해 재외 한인 정보자원이 단지 문헌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신문정보와 민속문화정보(민속놀이, 축제, 세시놀이 등)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를 통해 수집된 서지정보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삼아 모든 형태의 정보 자원을 포함한 재외 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외 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의 가치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재외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 류연산. 1999. “중국 한글출판의 어제·오늘·미래의 출로”. 『99 中國 朝鮮族出版文學學術研討會論文集』. 延吉: 延邊教育出版社, 50-70.
- 립선옥, 송창수. 1999. “초보적 사고 중국조선족출판문화의 특색과 진로에 대하여”. 『99 中國朝鮮族出版文化學術研討會論文集』. 延吉: 延邊教育出版社, 148-171.
- 이명규 외. 2005. 『재외한인문헌정보자원과 실제』. 서울: 집문당.
- 이명규, 장우권. 2004. 중국 조선족한글정보자원 생산과 출판물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401-422.
- 장우권 외. 2005. 재외한인 문헌정보자원관리: 중국과 중앙아시아. 『학술진흥재단 보고서』.
- 장우권, 사공복희. 2006.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글정보자원관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291-315.
- Библиотечно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1997. МОСКВА: Либерея.
- Kim G.N., Ross King. 1993. *Istorija, Kul'tura I jazyk korjo saram*. Almaty. *Корейцы Казахстана: Иллюстрированная история*.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Казахстана. 1997.
- Джумашев, А. М. 2002. К истории депорта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аракалпакстан (1937-1938 гг.). *Известия корееведения в Казахстане*. Вып. 9, Алматы.
- Trotsevich A. F. 2001. Rukopisnye sobranija 'neoficial' nykhistorij '(jasa)v biblioteke Vostochnogo fakul'teta SPeterburgskogo gosudarstvennogo universiteta, *Rossijskoe koreevedenie, Al'manakh*, Vyp.2 M., s.197-208.